

수입차 전문 수리
불리카 대표 박형수

M. 010-8998-1048 H. 063-244-1048
F. 063-244-1043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943-9

그랜드자동차
운전전문학원

대표원장 이장섭

Mobile, 010-4652-7327
Tel, 063-717-4444 Fax, 063-274-4445
E-mail, leewww2@naver.com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공취발원로 1614(상림동 60)

대표전화 (063)282-9601
인터넷 jeonbuktimes.co.kr

2025년 2월 24일(월) 제 3041호



싱가포르 국회의장단 전북 방문 시야 키엔 팅(SEAH KIAN PENG)싱가포르 국회의장 및 에릭 테오(Eric Teo) 주한싱가포르 대사 등 대표단이 21일 전북도청을 방문해 김관영 도지사와 상호 협력 강화에 대해 논의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북도>

道, 체류형 관광지 안착...1억 방문객 도전

전북 찾은 방문객 9천864만명...체류형 관광지 도약
평균 체류시간 2천784분...전국 광역지자체 평균 상회
외국인 방문 234만명 돌파...관광 글로벌화 정착 단계
한국관광 데이터랩 분석, 전북관광 가장 큰 매력은 '음식'

전북을 찾는 방문객이 해마다 증가하고 체류시간도 전국 광역지자체 평균을 상회하는 등 전북이 체류형 관광지로 도약하고 있다. 전북자치도가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 데이터랩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4년 전북 방문객 수는 9천864만명으로 전년 대비 0.3%(약 30만명)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8,332만 명, 2022년 9,495만 명, 2023년 9,833만 명을 기록했다.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 데이터랩은 이동통신사와 신용카드 업체에서 제공한 데이터를 활용해 이를 발표하고 있다. 전북의 평균 체류시간은 2,784분(약 46.4시간)으로 광역지자체 평균 2,374분보다 410분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3위에 해당하는 수치로, 당일 관광을 넘어 체류형 관광지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시사

한다. 도는 이러한 관광 수요 증가를 반영해 2025년 방문객 1억명 달성을 목표로 '전북야행'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 미식 관광 활성화, 친환경 산악관광지구 지정 등 차별화된 콘텐츠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전북을 찾은 관광객들은 다양한 이유로 전북을 찾았는데 그중에서도 음식(43.7%)이 가장 큰 방문 요인으로 분석됐다. 이어 기타 관광(13.0%), 숙박(11.8%), 문화관광(10.6%) 순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를 반영해 미식 관광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 특색을 살린 음식 관련 관광 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음식과 연계한 스토리텔링 여행 코스를 마련해 방문객들의 체류 시간을 늘리는 전략을 구상 중이다. 외국인 관광도 증가세를 보였다. 2024년 전

북 방문 외국인 수는 234만 명을 돌파했으며, 10만 명 이상 방문한 지역은 군산(101만 명), 전주(63만 명), 익산(24만 명), 완주(20만 명), 김제(11만 명) 순이었다. 도는 중국 단체 관광 재개 이후 일본, 중국, 베트남, 태국, 필리핀을 주요 시장으로 삼아 해외 'K-관광 로드쇼' 및 '찾아가는 관광 설명회'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북 관광의 글로벌 인지도를 높이고 외국인 방문객 유치에 위한 다양한 홍보·마케팅 전략을 펼칠 계획이다. 반면, 전북 방문객의 신용카드(BC·신한카드) 소비지출 규모는 2024년 7천382억원으로, 전년 대비 1.63% 감소했다. 관광객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금리·물가 상승·사회적 이슈 등으로 인해 소비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비교적 선방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정석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국내외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관광 홍보마케팅을 펼쳐 관광수요를 선점하고 방문객 1억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산악 관광 등 새로운 관광지 개발과 인프라 구축에도 힘써 전북 관광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국주영은 의원, "지역상품권 추경 조속 편성하라"

대통령 불법 계엄령 선포로 지역 경제 어려움 가중
연구 결과 자본 역외유출 방지 지역소비 증진 효과
정부 여당 정치적 유불리 따지며 관련 예산 칼질 삭감

전북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은(전주 제12)이 21일 진행된 제 41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지역 소상공인과 주민들에게 호응이 높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조속한 추경 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12월 10일 확정된 윤석열 정부의 2025년도 예산에는 지역 소상공인과 주민들에게 호응이 높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단 한푼도 편성되지 않았다.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윤석열 정부 들어 단 한번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국회 예산안 심의 단계에서 일부를 편성해왔던 상황이다. 그러나 윤 정부가 들어선 이후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고물가, 고금리 등 악재를 겪고 있던 상황이고 오히려

데 덮친 격으로 지난 12월 3일 대통령의 불법적 계엄령 선포로 환율까지 폭등시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비롯한 국민들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최근 발표되는 경제 동향에 따르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100만에 달하고 있고, 월 100만원도 벌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75%에 육박하는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고 발표되고 있다. 국 의원은 "이러한 경제적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민의힘은 정치적 이익과 유불리만을 계산하며 국민 대다수가 호과성을 인정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에 대해 포퓰리즘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깎아내리며 긴급하게 이뤄져야 할 이번 추경 예산에서조차 탄축을 걸고 있는 실정이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실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다양한 연구결과 대부분은 지역 사랑상품권이 지역 소비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고 있고 부정적 결론을 제시하고 있는 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조차도 지역 내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가시키고 역외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현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 운영하고 있는 대다수 자치단체장들 역시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 내 소비 촉진 효과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전통 시장과 지역상권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정부의 예산편성을 강력 주장하고 있다. 국 의원은 "한국 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을 살리는 지역 사랑상품권 정책이 적극 추진되기 위해 이번 추경에 관련 예산이 반드시 편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관 기자

전북자치도, 전북대 글로벌대학 지역상생사업 본격 추진

도, 대학과 함께 지역상생사업 19건 확정...120억 편성
전북대 500억·원광대 750억 지원... 대학과 지역 연계

전북자치도가 전북대 글로벌대학에 지원하는 도비를 활용해 본격적인 지역상생사업을 추진한다. 전북자치도는 21일 김종훈 경제부지사를 비롯한 R&D 분야 전문가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대 글로벌대학 지역상생사업 사업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김종훈 경제부지사를 위원장으로 각 분야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됐으며 과제별 성격에 맞춰 해당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북대 글로벌대학 지역상생사업'은 글로벌대학인 전북대에

지원하는 도비 500억원을 활용해 지역산업 육성 및 지역발전 기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도와 전북대는 '지역상생사업'으로 추진할 과제를 43건을 발굴, 심사위원회 평가와 도와 전북대간 협의를 통해 2025년 본예산에 19개 사업, 120억원의 사업비를 편성했다. 이날 개최된 사업관리위원회는 사업의 단순한 선정·탈락 개념이 아닌 '지역상생'이라는 취지에 맞게 실질적인 실행과 성과 창출을 위한 자문과 토론의 자리로 마련됐다. 지난해 12월, '25년 본예산이 확정된 후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테크노파크를 통해 '지역상생사

업' 검토를 지시했고 전북테크노파크는 자체 전문가 풀을 활용해 과제별 보완사항을 제안했다. 이에 도에서는 과제별 부서를 통해 전북TP가 제안한 보완 사항을 반영했으며 이날 사업관리위원회를 통해 제대로 보완이 되었는지 논의했다. 도는 사업관리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인 성과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고 사업이 지역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글로벌대학 사업을 통해 두 대학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북대에는 500억, 원광대에는 750억을 지원해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 자리잡을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道, 지속가능 농촌 조성 사업 추진...66억원 투입

귀농인의 집·체재형 가족실습농장 등 정착 지원 사업 등 6개 주요 사업 본격화

전북자치도가 귀농·귀촌 인구 확대를 통한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농촌 조성을 위해 올해 총 66억원을 투입해 6개 주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도는 귀농귀촌 희망자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귀농인의 집(104개소) ▲체재형 가족실습농장(11개소) ▲게스트하우스(7개소) 등 전국 최대 규모의 임시 거주시설을 운영하며, 이를 통해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촌 생활을 체험하고 정착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귀농귀촌 유지지원사업의 일환인 '귀농인의 집'은 최대 2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직접 농촌에서 생활하며 영농 기술을 익히고 정착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도내 13개 시군(전주시 제외)에서 104개소가 운영 중이며, 순창군이 20개소로 가장 많은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단기 체류형 시설인 '게스트하우스'는 예비 귀농귀촌인이 7일 이내 머물며 지역 탐방과 농촌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조성됐으며 현재 정읍 등 7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은 최대 2년 동안 거주하며 텃밭을 활용한 농사 실습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는 10개월간 영농 교육과 농업창업 실습을 병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완주군과 고창군에서 운영 중이다.

도는 청년층의 농촌 유입을 확대하고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귀농귀촌 사관학교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군인, 대학생 등 귀농귀촌을 고민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실질적인 귀촌 준비를

돕는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 귀촌인의 활동 거점 마련을 위해 '귀농귀촌 동지마을 조성 사업'도 추진된다. 현재 김제시 대죽마을 등 도내 8개 우수마을이 동지마을로 지정돼 운영 중이며 귀촌 청년들의 창업 및 마을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최재용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도 시민들이 전북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거·교육·일자리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혜민 기자



시아 키엔 팡 싱가포르 국회의장, 전북도 방문 문화·금융·산업·유학생 등 상호 협력 강화 논의

시아 키엔 팡 싱가포르 국회의장과 에릭 테오 주한싱가포르 대사 등 대 표단 일행이 지난 21일 전북특별자치도를 방문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초청으로 추진된 이번 방문은 4박 5일간 일정 중 지사 체 방문은 전북자치도가 유일하다.

방문단은 이날 김관영 도지사와 간담을 시작으로 전주대 교환학생 간담, 전주한옥마을 시찰 등 일정을 진행했다. 양 측은 환담을 통해 문화, 관광산업, 금융 등 분야에 있어 지속가능한 협력 모델 구축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 강화에 대해 논의 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싱가포르는 아시아 금융 중심지이자 첨단 산업 강

국으로 우리 전북자치도와 협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며 "이번 만남이 양 지역 간 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시아 국회의장은 "전북은 처음이지만 한국을 대표하는 역사와 문화의 도시이자, 농생명, 신재생 등 다양한 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다"며 전북자치도와의 협력에 기대감을 내비쳤다.

시아 국회의장은 지난 2006년 첫 국회의원 당선으로 오랫동안 싱가포르 정치에 몸담은 원로 의원으로 2023년 8월에 국회의장으로 선출됐으며 일행은 23일 서울에서의 공식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한다.

/김관 기자

전북도, 관광자원 활용 관광상품 개발...전담여행사 맞손

‘전북 전담여행사’ 15개사 선정, 소통 간담회 개최...전북 관광상품 차별화 마케팅 전략 등 논의

전북자치도는 지난 21일, 전북의 다채로운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과 홍보를 위해 선정한 '전북 전담여행사' 15개사에 지정서를 수여하고 전북 관광 활성화를 위한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1월 공모를 통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 역량이 뛰어난 '전북 전담여행사' 15곳을 선정했다. 선정된 여행사는 향후 2년간 내국인 20인 이상, 외국인 10인 이상을 대상으로 전북 관광 상품을 운영할 경우 숙박비, 문화 체험비, 차량 임차비, 펌투어 운영 실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전담여행사 지정서 수여식 이후 열린 간담회에서는 여행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전북 관광상품 차별화 및 마케팅 전략 ▲외래 관광객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숙박·교통·체험 콘텐츠 연계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도는 전담여행사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여행 트렌드 변화에 맞춘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전북을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고 싶은 대표 여행지로 만들 계획이다.

또한, 전북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일반 여행사를 대상으로도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전북투어패스, 국내·외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 해외관광객 유치 마케팅 등 다양한 관광사업을 추진, 전북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손미정 도 관광산업과장은 "전담여행



전북자치도는 전북의 다채로운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과 홍보를 위해 선정한 '전북 전담여행사' 15개사에 지정서를 수여하고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와 협력해 전북만의 특색 있는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전북이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여행지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김정기 도의원,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전북자치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이 지난 21일 열린 제4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두고 있

다. 이는 전북자치도 입장에서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거도적 차원의 지역발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새만금 권역 내 3개 시군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 소모적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또 전북의 미래를 담보할 새만금 개발사업의 결집도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효한 해법으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이 주목받고 있다.

김 의원은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 3개 시군의 통합을 뜻하는 게 아니다"면서, "현행 기초자

치단체로서의 외형과 실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3개 시군이 새만금 발전을 위한 공동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별도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한 것인데 이를 위한 사전 단계로 특별자치체 합동 추진단 구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관 기자

윤수봉 도의원, 긴급현안질문 무산 폭거에 강력 항의

전북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윤수봉 의원(완주1)은 지난 21일 제4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긴급현안질문이 무산된데 대해 강력 항의하며, 의원의 의정활동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완주·전주 통합 이슈가 기획행정위원회의 소관 사무이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원장과 구두상으로 협의했으나, 상임위원장이 서명을 해 주지 않아서 긴급현안질문이 무산된데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다.

윤 의원은 "본 의원의 긴급현안질문은 몇 개월 전부터 준비를 한 것이고,

질문 시기를 맞춰서 하려고 했던 것이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긴급현안질문의 전반적인 내용은 완주·전주 통합 반대에 관한 것이며 전북자치도의 도정 관련 현안들 전반에 대해 질문하고자 했다.

윤 의원은 "김관영 도지사는 일야십기(一夜十起) 일궈십기(一饋十起)의 정신으로 도민의, 도민에 의한, 도민을 위한 도정을 펼쳐야 한다"며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완주·전주 통합보다는 전북자치도 앞에 산적해 있는 민생현안 등에 집중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관 기자

전용태 의원, “난방경유 면세 난방 유종에 포함 시켜야”

전용태 의원(진안)이 대표 발의한 '농업용 면세난방유 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이 지난 21일 제41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전 의원은 "농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난방기 유종 선택의 자유 및 시장경제질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난방경유를 면세 난방 유종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농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경유를 농업용 면세난방유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투명하고 공정한 면세난방유 보급 및 관리를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면세난방유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용과 연계한 난방기술 개발 및 보급을 확대하라"고 건의했다.

/김관 기자

겨울철 난방비 절약 하는 방법

1. 보일러 외출로 틀어놓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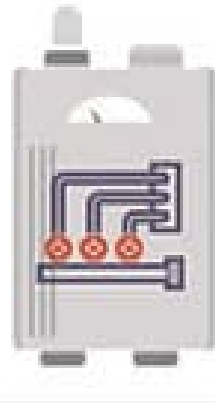
2. 보일러 틀 때 가습기 함께 사용하기



3. 실내 적정 온도와 습도 유지하기



4. 난방 밸브 확인하기



전북, 시군구 연고사업 선정...국비 43억 확보

올해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공모 선정, 2년간 국비 43억 확보

김제·순창·남원·장수, 지역 특화산업 중심 맞춤형 지원 추진으로 경쟁력 강화·지방 소멸 대응

전북자치도와 전북테크노파크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5년도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공모에서 김제, 순창, 남원, 장수 4개 지자체 사업이 선정돼 2년간 국비 43억원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는 중소벤처기업부가 행정안전부,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업해 인구감소 지역 및 관심지역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지역 연고산업을 발굴·육성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 소멸을 방지하

는 사업이다.

전북에서는 전주, 군산, 완주를 제외한 11개 시군이 해당 지역으로, 도는 기업 활동 인프라 구축, 농촌특화 기업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포함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김제, 순창, 남원, 장수는 지역 특성을 살린 산업을 중심으로 기술개발, 창업 활성화, 전문 인력 양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제시는 '미래 Special 차Car세대성장 프로젝트'를 통해 특장차 산업의 경

쟁력을 강화한다. 순창군은 '마이크로바이옴 연계 농생명 식품산업 생태계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남원시는 '그린바이오산업 지역혁신 거점 활성화 사업'을 통해 곤충산업 거점단지와 연계한 친환경 바이오소재 제품 개발을 지원한다.

또 장수군은 '레드푸드 전·후방기업 경쟁력 강화 및 스마트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해 청년활력센터 및 농군사관학교와 연계, 노후 설비 개선, 판로 개척지원,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해 지역 특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산업 창출

을 도모할 예정이다.

도와 시군은 이들 사업을 이달부터 본격 추진하며 참여기관 및 기업 간 협약 체결과 추가경정예산 확보를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신원식 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정부 정책과 연계한 전략적 대응으로 지역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며 "올해는 지역 연고 산업을 집중 육성해 일자리 창출과 정주 여건 개선이 선순환 구조를 이루도록 시군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이중근 회장,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4억 전달

우정교육문화재단 통해 지급...유엔데이 공휴일 지정 제안

'출산장려금 1억 원' 지급부터 '노인 연령 75세 상향 조정' 제안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가 당면한 현안에 목소리를 내며 저출생·고령화 해결사로 나선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지난 20일 직접 사재를 출연해 설립한 우정교육문화재단을 통해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부영그룹 우정교육문화재단(이사장 이중근)은 지난 20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5년 1학기 외국인 장학금 수여식'을 갖고 30개국 외국인 유학생 98명에게 장학금 약 4억 원을 전달했다.

이 날 대표 장학생으로 선발된 콜롬비아 출신 아르구에조 가오나(숙명여자대학교 글로벌협력 전공)는 "6·25전쟁 참전용사이신 할아버지

의 영향으로 어릴 적부터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며 엄청난 발전을 이뤄낸 한국에서 배움의 기회를 갖고 싶었다"며 "우정교육문화재단의 지원 덕에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중근 이사장은 "훗날 고국과 대한민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유엔데이 공휴일 지정'도 제안했다. 6·25전쟁은 유엔군 60개국이 참전한 유일한 전쟁이다. 이 이사장은 유엔의 희생 덕분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며 희생과 고마움을 기억하고 참전국들과의 외교 관계 개선을 기대했다.

이 날 행사에는 6·25전쟁 참전 12개국 대사들도 자리해 민간 외교 역할을 하기도 했다. /최준호 기자

전북도, 농식품 부산물 활용 푸드 업사이클링 산업 육성

푸드 업사이클링 간담회 열고 기능성 소재 개발·규제 개선 논의...글로벌 시장 107조 규모 성장 전망, 도 선제적 대응 나서

전북자치도가 지난 21일 고창식품산업연구원에서 농식품 부산물의 고부가가치 활용을 통한 지속 가능한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푸드사이클링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북대 글로벌대학 30 지역상생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전북자치도를 비롯해 고창식품산업연구원, 전북대학교, 바이오융합진흥원, 한국식품연구원, ㈜금성상공 등 식품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실질적인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주요 내용은 ▲미강, 고구마 등 부산물 활용 제품 생산·판매 관련 규제 개선 방안 ▲농산·식품부산물의 기능성 원료화 기술 ▲기업 및 연구기관 간 협력 방안 ▲위탁생산(OEM) 및 대기업 판로 확보 전략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특히, 업사이클링 제품의 생산·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행정적 규제를 해소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꼽혔다. '푸드 업사이클링 산업'은 식품 생산·유통·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재탄생



전북자치도는 21일 고창식품산업연구원에서 농식품 부산물의 고부가가치 활용을 통한 지속 가능한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푸드사이클링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시키는 산업으로, 환경 보호와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실현하는 미래 핵심 분야로 떠오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연간 13억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며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환경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글로벌 푸드 업사이클링 시장 규모는

2022년 530억달러(약 68조)에서 2032년 833억 달러(107조)로 성장할 전망이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12월 푸드 업사이클링 산업 육성을 위한 한국산업표준(KS)이 제정됐다. 이를 통해 ▲업사이클 식품 정의 ▲원료 요건 및 함량 기준 ▲부가가치 증명 및 공급망 관리 기준 등의 요구사항이 정립되며, 기술 표준화가

이뤄졌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도는 농식품 부산물의 기능성 소재화를 통한 산업화 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기업·연구기관과 협력해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도는 지난해 도내 시군별 푸드 업사이클링 지원 조사를 마쳤으며 이를 바탕으로 2027년까지 총 10억5천만원(3개년)을 투입해 '농식품 부산물 활용 기능성 소재 개발 및 업사이클링 산업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식품 부산물을 기능성 원료로 전환하는 기술개발 ▲산업화 기반 마련 ▲관련 기업 지원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전북이 국내 푸드 업사이클링 산업의 선도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재용 도 농생명산업혁신국장은 "푸드 업사이클링 산업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만큼, 전북도가 선제적으로 산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

바이오진흥원,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식품분야 대표기업 육성 추진

육성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도내·외 농생명식품기업 및 관련 유통·ICT기업 20개사 선정 예정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 바이오진흥원)은 지난 17일 신청서 접수를 시작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분야 대표기업 육성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오진흥원은 이번 사업을 통해 도내·외 농생명 식품기업, 식품관련 유통 및 ICT 기업 20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농생명분야 대표기업 육성 지원사업'

은 농생명·식품산업 분야의 혁신형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기술 기반 우수기업이 도내 농생명·식품산업의 구조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외 농생명·식품산업 제조기업 및 식품 관련 유통·ICT 기업으로 접수 마감일까지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서류평가, 현장 실사 및 발표 평가를 거쳐 최종 대표기업을 선정하게 된다.

사업을 주관하는 바이오진흥원은 이번 모집을 통해 창업, 성장, 리딩, 식품관련 유통 및 ICT 분야에서 총 20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기업은 최소 2년에서 각 단계별 성과요건 충족 시 평가를 거쳐 최대 7년까지 기술 역량강화 및 고도화 지원, 사업화 지원, 성장전략

수립 지원 등 다양한 기업수요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받게 된다.

이은미 원장은 "식품산업 구조 확대를 위해 식품 관련 유통 및 ICT 기업까지 모집 범위를 넓혔다"고 말했다.

대표기업 육성사업 참여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및 바이오진흥원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서 접수기한은 오는 28일 까지이다. /최준호 기자

새만금청, 경기도 시화지구 방문 벤치마킹협력 모색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지난 21일 김경안 청장을 비롯해 직원들이 경기도 시화지구 현장을 방문해 시화지구 사업의 노하우를 배우고 관계기관과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시화조력발전소를 찾은 김경안 청장과 직원들은 방조제 여건과 조력발전 시설의 건설 과정, 발전량 등의 현황을

청취했으며, 시화지구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달전망대에 올라 조력발전을 통한 시화호 수질개선과 관광부지 개발 상황 등을 확인했다.

또한, 송산그린시티 현장을 둘러보면서 주거, 산업, 관광시설이 융복합된 첨단복합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현황을 파악했다.

한국수자원공사와는 시화조력발전소에 따른 재생에너지 공급 및 수질개선 효과, 첨단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친환경 정주 여건, 기후변화 대응, 해양관광 레저 계획 등의 사업 전략을 공유받으면서 향후 새만금 사업과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준호 기자

전북농협, 농가지원등 지도사업활성화전략회의열어



전북농협(총괄본부장 이정환)은 지난 20일 도내 14개 시군회원지원단원 등 20여명이 모여 2025년 지도사업 활성화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전북농협은 변화와 혁신을 통한 새로

운 대한민국 농업 구현을 위해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 농촌 활력과 유도, 사업활성화 및 농정협력 확대로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지역사회공헌을 통한 농업 가치 확산을 위해 역량을 집중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사업으로는 ▲취약농가 인력지원 ▲찾아가는 청춘버스, 왕진버스 ▲상시 이상기후 대응체계 가동 ▲농촌인력증가사업 및 농촌일손돕기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등을 낸 중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준호 기자

전북은행, 군산시 지역아동센터 '희망의 공부방' 오픈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군산백두산지역아동센터에서 'JB희망의 공부방 제191호' 오픈식을 실시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지난 2005년 개소한 백두산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홀로 집에 있는 아동들과 경제적 이유로 해체 위기에 있는 가정의 아동들에게 다양한 정서 및 심리적 지원, 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오랫동안 사용해 낡고 불편함이 큰 물품들의 교체 및 환경개선이 필요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전북은행에서는 그동안 고장이 빈번하고 센터이용 아동 수에 비해 매우 부족했던 개인사물함을 지원해 아동들이 스스로 물건을 정리하고 보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또한 급식실 식탁과 의자, TV장, 수납장, 블라인드 등도 전면 교체해 아동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즐겁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다. 오픈식에는 전북도의회 문승우 의장, 군산시 이영란 아동정책과장, 백두산지역아동센터 심연주 센터장, 전북은행 오희권 부행장, 전상익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최준호 기자

전주시 어르신들, 도시농업 공간관리자 '시니어 텃밭관리사'로 거듭나

전주시역 노인들이 도시농업을 이끌 시니어 텃밭관리사로 거듭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됐다.

전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권)는 올해 전주시니어클럽(관장 김효춘)과 협력해 도시농업 활성화와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농업 컨설턴트 사업단'과 '힐링팜가이드 사업단' 등 총 80명을 선발해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도시농업 컨설턴트 사업단'은 지역 복지관과 중학교, 공공기관 등 사전에 전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보조사업으로 조성한 도시농업 공간의 관리 및 유지 보수, 농업 체험활동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힐링팜가이드 사업단'은 초등학교에 조성된 학교텃밭 관리에 특화된 사업단으로, 전주시역 22개 초등학교에 투입돼 아이들과 함께 텃밭을 가꾸고

농업 체험을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시는 이들 2개 사업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난 12일부터 21일까지 '시니어 텃밭관리사 양성 교육'을 운영하기도 했다.

교육과정은 참여자들이 도시농업 공간을 조성하고 관리 할 수 있도록 공통과목과 사업단별 전문교육으로 운영됐으며, 이날 총 80명이 교육을 수료했다.

구체적으로 공통과목은 ▲도시농업과 치유농업의 이해 ▲텃밭 모양 및 양분 관리 ▲텃밭 디자인 원리 및 식재모델 ▲텃밭 작물관리 ▲농작업 안전 교육 등 참여자들이 도시농업을 이해하고, 도시농업 공간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구성됐다.

전문과목의 경우 '도시농업컨설턴트 사업단'은 다양한 기관의 서로 다른 실



수 있도록 ▲허브와 원예식물 관리 ▲도시농업 공간 유형별 관리 방법 등의 내용을 학습했으며, '힐링팜가이드 사업단'은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농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농업체험 프로그램 실전가이드 과정을 배웠다.

교육을 수료한 시니어 텃밭관리사들

은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전주시 곳곳에 조성된 도시농업 공간을 유지·관리하며 전주시의 도시농업을 더욱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전주시 농업기술과 관계자는 "도시농업과 연계한 노인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도교육청, 학생·급식종사자 건강 챙긴다

총 575억 원 예산 투입… 노후 식생활관 리모델링·급식기구 교체·인덕션 기구 보급 확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급식환경 개선으로 학생과 급식 조리종사자의 건강을 지킨다.

전북교육청은 2025년 학교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을 위해 총 575억여 원을 투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예산은 식생활관 환기설비개선 사업을 포함한 노후 식생활관 리모델링 및 노후화된 급식기구 교체, 전기식 국솥과 오븐 등 인덕션 기구 보급 확대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전북교육청은 학교 급식종사자의 작업환경 개선과 건강권 확보를 위한 식생활관 환기설비 개선 사업을 지난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 145개교의 개선을 완료했고, 107개교에서는 개선 사업이 진행 중이다.

2025년도에도 120개 학교(연속 사업 59개교, 신규 사업 61개교)에 총 308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등 2027년까지 555개교를 대상으로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주요급식기구 교체도 연차적으로 지원한다. 올해 69개교에 113대의 전기식 국솥, 오븐 등 인덕션 기구 지원비로 14억1,800여억원을 편성해 에너지 효율성과 급식종사자의 안전을 강화한다.

소독기(129교), 살균보관고(24교), 냉난방기(42교) 등 급식 위생 및 안전한 급식환경에 필요한 기구 지원에도 7억7,550여만 원을 투입한다.

조리실무사의 작업 여건 개선을 위해 야채절단기(25교)·탈피기(22교)·애벌세척기(13교)·세미기(10교) 구입 등에 3억7,800여만 원을 지원하며, 32개교에 대



전북교육청은 학교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을 위해 총 575억여 원을 투입한다고 24일 밝혔다

해서는 노후 식탁과 의자도 교체한다.

서거석 교육감은 “환기설비의 설계 기준과 준공 정산 요령 등에 대한 전문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최성민 기자

도교육청, 학력인정 문해교육 수료식 개최

초등 94명·중학 35명 총 129명… 최고령 졸업자 90세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한 특별한 졸업식이 열렸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 21일 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2024학년도 문해교육 프로그램 초등·중학 학력인정 수료식’을 개최했다.

학력인정 문해교육은 학력이나 문해 능력이 낮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글자를 읽고 쓰는 능력과 생활 속 문해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가르치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2024학년도 문해교육 프로그램 학력인정 기관으로 지정된 도내 6개 지역 10개 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129명(초등 94명, 중학 35명)이 학력인정서를 수여 받았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72

세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배움의 희망을 놓지않고 학습을 이어가면서 최고령 졸업자인 90세의 이필순 어르신은 “못 배운 것이 한이 되었는데 이제는 어지간한 영어도 읽을 줄도 알고, 평생 못 입어 본 교복도 교육청에서 입혀주고 졸업식도 해주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기뻐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끊임없는 도전정신과 열정으로 영광스런 졸업을 하게 된 129명의 졸업생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사랑을 보낸다”며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도 문해교육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배움과 도전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대 총동창회, 신년교례회서 새해 새 도약 다짐

천광석 동창회 고문·김경호 사경장·진성준 국회의원 ‘동문대상’ 수상… “전북대 자긍심 샘솟도록 최선”

전북대학교 총동창회(회장 최병선)가 지난 20일 오후 진수당 개교77주년 기념회에서 동문대상 시상식 및 신년교례회 행사를 열고, 올 한 해 역동적인 사업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신년교례회에는 최병선 총동창회장과 양오봉 총장, 두재균·이남호 전임 총장,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우병기 전주시장, 정성준 김제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등 동문 시·군 단체장, 김동근 전북대 교수회장 등 200여명 참석해 선황을 이뤘다. 또한 김관영 도시사와 김윤덕, 안호영 국회의원, 정현을 시장, 권익현 군수 등은 동영상을 통해 축하의 뜻을 전달했다.

올해 동문대상은 천광석 전북대 총동창회 고문, 김경호 사경장, 진성준 국회의원이 수상했다. 천광석 고문은 28대 29대 전북대 총동창회장을 역임하면서, 동문간의 화합과 총동창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점이 인정 되었다.

또한 김경호 사경장은 국가무형문화재로 사경분야에서 국내 최고 장인으로 전북대학교를 크게 알린 공이 인정되었다. 진성준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으로써 전북대의 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청와대 비서관으로 재직 시 약학대학 설립에 크게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었다.

최병선 회장은 “작년 한해 2만 4천명에게 지원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꾸



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립준비청년 장학금 ▲해외체험장학금의 확대 지급, ▲총동창회 수익사업 진행, ▲총동창회 협력기관 할인사업, ▲재학생 장학금 지급 등의 사업계획도 밝혔다.

이날 양오봉 총장도 축사를 통해 “모

/최성민 기자

전주대·한국원자력 첨단방사선연구소, 워크숍 개최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와 연구 협력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전주대 대학본관 205호 세미나실에서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양 기관 간 연구 협력을 강화하고,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중요한 자리다.

1일차에는 “방사선을 이용한 양 기관 간 연구협력 분야 소개” 주제로 4개 섹션별 주제 발표와 연구 성과를 공유했다.

2일차에는 전북 카카오프로젝트 디지

털혁신센터 건학 및 전주대학교 박물관에서 개교 60주년 기념 특별전시 관람, 학원 협력체계 구축 및 역할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워크숍을 총괄한 전주대학교 이해원 산학(특임)부총장은 “오늘 이 자리가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전주대학교 간의 연구 및 인력 교류 협력의 중요한 첫 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참가자들은 다양한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할 기회를 가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기전대학메이커스페이스, 중소벤처기업부 평가 ‘최우수’

전주기전대학 산학협력단(단장 조태현)이 운영하는 메이커스페이스 사업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메이커스페이스 사업 연차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S등급에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메이커스페이스 사업은 창작 및 창업에 지원하는 개방형 제작 공간을 조성하여 다양한 도구와 장비를 활용해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고, 창의적 제작 문화 확산과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정부 지원 사업이다.

전주기전대학 메이커스페이스는 3D 프린터, 목공장비, 레이저커터 등 다양한 제조 장비를 활용하여 창작 및 창업

을 지원하고,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창업 멘토링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초등학교 및 여러 기관과 협력하여 진행한 공방 활동을 통해 창의적 제작 문화를 확산하고 있으며, 이러한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 평가에서 최고 평가를 받았다.

향후 전주기전대학 메이커스페이스는 RISE(지역혁신사업)와 연계하여 창작 및 창업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혁신 인재를 양성하고, 신산업 창출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며, 지역 기반 스타트업의 성장과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 산업안전업무 담당자 대상 안전 역량 강화 연수 개최

위험성평가 모든 교직원 확대 시행… 안전관리 강화·체계적인 예방 활동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 21일 전주학생교육문화관에서 각급 학교 행정실장과 교육기관 산업안전업무 담당자 800여명을 대상으로 안전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했다.

이 연수는 전북교육청이 올해 중대재

해 예방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소개하고, 행정실장과 산업안전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연수 내용은 ▲위험성평가 ▲학교(기관) 산업재해 사례 ▲산업재해 예방 대책 등이다.

특히 위험성평가를 올해부터는 모든 교직원으로 확대 시행하기 위해 안전보건공단과 안전관리 전문기관이 참여해 마련한 ‘정기 위험성평가 예시활용 방법’도 안내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공공기관

의 현업업무종사자를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북교육청은 모든 교직원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사무환경, 실험실습실, 휴게실 등까지 유해·위험 요인을 점검할 방침이다.

/최성민 기자

꼭

지켜야할 교통안전 실천수칙

운전할때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

방향지시등 점등

교통신호 준수

음주운전 금지

전좌석 안전띠 착용

안전모 착용

스마트기기 사용금지

규정속도 준수

안전운전

정읍시, 반려견 동물등록비 ‘0원’… 유기견 줄이기 총력

반려견 동물등록 비용이 부담돼 미루고 있었다면, 정읍시의 이번 지원사업이 희소식이다.

시는 올해 동물등록비 지원사업을 추진해 반려견 소유자들이 비용 부담 없이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전액 무료 지원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 등록률을 높이고 유기견 발생을 줄이는 것이 목표다.

이번 ‘반려견 동물등록비 지원사업’은 2023년부터 매년 시행돼온 정책으로 정읍시에 거주하는 반려견 소유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등록비는 마리당 3만원 상당이며, 마릿수에 제한 없이 무료 등록이 가능하다.

특히 마당에서 키우는 대형견(마당개)의 경우, 병원 방문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도 함께 운영된다. 마을별 등록 대상 반려견이 5마리 이상일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동물병원 수의사가 직접 해당 마을을 방문해 등록을 진행한다.

시는 2개월령 이상의 개를 등록하지 않으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협력 동물병원 안내·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시청 축산과 동물보호팀(063-539-6404)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정민 기자

정읍시, 시민창안대회 출가·사후관리단계 공동체 모집

정읍시가 시민 주도의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시민창안대회 출가·사후관리단계에 참여할 공동체를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지역 공동체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시민창안대회는 시민과 공동체가 직접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교육·훈련·실행 단계를 거쳐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지역 공동체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번 모집에서는 출가단계와 사후관리단계 참여 공동체를 선발한다. 출가단계는 시민창안대회의 뿌리 단계를 완료한 공동체가 지원할 수 있으며 사후관리단계는 출가단계 사업을 완료한 후 2년이 지난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 접수는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신청을 원하는 공동체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제2청사 지역협력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정읍=김정민 기자

군산시, 전북도 자문위 결론 왜 숨겼나

‘새만금 신항 무역항지정’ 회의 결과 공개 요청…군산시 시민단체 대규모 집회 강행

전북자치도가 ‘새만금 신항 무역항 지정 자문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시민사회의 요구에 침묵을 지키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지역 시민단체들은 수송동 롯데마트 앞에서 4,000여 명이 참석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자문위원회 회의 결과의 즉각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집회에서는 일부 참석자들이 사발식을 강행하며 강한 의지를 표출했으며, 현장 분위기는 뜨겁게 달아올랐다.

▲ 새만금 신항 무역항 지정, 지역사회 갈등 심화

해양수산부는 새만금 신항의 운영방식과 무역항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전북자치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지난해 7월 김제시청 기자 간담회에서 “중립적인 전문가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도의 공식 입장으로 제출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자문위원회가 세 차례 회의를 거쳐 ‘군산항과 통합 운영하는 One-Port 체계가 적절하다’는 결론을 도출했음에도, 전북자치도는 해당 의견을 배제하고 자체적인 의견을 해양수산부에 전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 시민사회 “자문위 결론 배제, 전북자치도 불신 키워”

군산시 시민단체들은 김관영 도지사



군산시 시민단체들이 지난 22일 수송동 롯데마트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가 직접 약속한 사항을 뒤집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북서부항운노동조합 고봉기 위원장은 “새만금 신항 무역항 지정 여부는 지역 물류 산업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안이다. 전북자치도가 자문위원회의 객관적 판단을 배제한 것은 지역 사회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시민단체들은 자문위원회 회의 내용과 결정 과정을 숨기는 전북자치도의 행보가 특정 이해관계를 반영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며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 “전북자치도, 자문위 결과 은폐 의혹… 시민사회, 대규모 집회 강행”

현재 전북자치도의 침묵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문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은

폐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며 지역 사회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전북자치도가 자문위원회의 결론을 왜곡하거나 배제한 채 자체 입장을 밀어붙였다면 이는 명백한 행정 조작이며,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규탄하고 있다.

새만금 신항 개항이 불과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시민사회는 “도가 끝까지 회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과 함께 대규모 집회를 강행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해양수산부의 최종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전북도가 끝내 회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논란을 지속할지, 투명한 행정으로 도민의 신뢰를 회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당정 예산정책협의회, 예산 확보 ‘맞손’

2026년도 국비 확보 방안·시정 주요 현안 사업 논의… “건축재정 올해도 변함 없을 것”

정읍시가 윤준병 국회의원과 머리를 맞대고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협치에 시동을 걸었다.

시는 지난 21일 수성동 주민센터 컨벤션홀에서 이학수 시장을 비롯한 국·소장과, 윤준병 국회의원, 박일 시의회 의장, 도·시의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당·정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국가 예산 확보와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는 지역 정치권과의 소통과 협력을 토대로 당·정 간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해 지역 현안사업과 관

련된 국가예산 대응에 결의를 다지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시는 2026년 정부부처 예산안에 일부 반영되거나 미반영된 국가예산이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시는 ▲역전지구대 이전 건립사업 ▲국가 바이오자원 평가 실증지원센터 구축 ▲팜푸드 소재 산업화 플랫폼 구축 ▲광역 공동 농기계 임대·수리센터 신축 등 34건(국비요구 921억원)의 2026년 국가예산 확보 대상 사업의 추진현황을 설명하고 당 차원의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건축재정은 올해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초건축재정 상황 속 국가예산 확보는 발빠른 사전 준비와 간절함이 중요하다. 하나의 목표를 위해 정치권과 정읍시가 하나되는 ‘예산 원팀’의 모습을 보여주자”고 강조했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만의 경쟁력을 키우고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각종 현안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고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익산 다이로움 앱 개편…혼선 없도록 홍보 총력

오는 25일~내달 6일까지 결제 등 서비스 일시 중단… 내달 7일 새로운 앱 사용 가능

익산시가 익산사랑상품권 ‘다이로움’ 앱 개편에 맞춰 시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소상공인부터 정보 취약계층까지 맞춤형 안내를 강화해 원활한 이용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익산시는 ‘다이로움’ 신규 앱이 내달 7일 출시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에 따른 이관 작업의 일환으로 오는 25일부터 내달 6일까지 10일간 결제 등 기존 서비스가 일시 중단된다.

이에 시는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전방위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우선, 소상공인과 가맹점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 슈퍼마켓사업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관련 단체와 전통시장 상인들을 직접 찾아 개편 내용을 안내했다.

또한, 경로당과 복지관을 방문해 노인이나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시민에게 다이로움 앱 설치 방법과 이용법을 쉽게 안내했다.

시민들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29개소)와 익산시 내 농협(51개소), 하나은행(2개소), 신한(18개소), 전북은행(9개소)에서 앱 설치 등에 대한 이용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새로운 다이로움 앱은 내달 7일부터 사용 가능하다. 3월 한 달간 앱을 설치한 뒤 다이로움 가맹점에서 1만 원 이상 결제한 이용자 2,000명을 추첨해 5,000포인트를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시, 청년 식품 창업의 허브를 열다

정현을 시장, 청년식품창업센터 방문…전문 교육·사업화 공간·제품 제작 등 창업 전 과정 지원

청년들이 식품 창업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익산시가 앞장선다.

정현을 시장은 지난 21일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청년식품창업센터를 방문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이명남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본부장, 임탁근 익산지역자활센터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정 시장은 청년식품창업센터 운영 현황을 보고받은 후 ▲스튜디오 ▲임대

형 공장 ▲시제품 제작실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청년 창업자를 위한 지원에 부족함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폈다.

왕궁면 광암리에 위치한 청년식품창업센터는 연면적 9,300㎡에 4층 규모로 지난해 11월 개소했으며, 전문 교육부터 사업화 공간과 시제품 제작까지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맞춤형 공간이다.

청년식품창업센터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임대형 공장 10개소와 기업 사무실 8개소에 입주할 청년기업을 공개 모집했으며, 이달 말 심사를 거쳐 내달 중 최종 입주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년 창업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창업 캠프, 액셀러레이팅 등의 전문 교육을 제공한다.

/익산=최준호 기자



익산시, ‘홀로그램 아트&갤러리쇼’

전시 성황… 4,000여 명 방문·오는 28일까지 개최

홀로그램 선도시 익산에서 열린 ‘홀로그램 아트&갤러리쇼’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개막 일주일 만에 4,000여 명이 다녀가며, 홀로그램 기술의 대중화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익산시는 익산예술의전당 미술관에서 진행 중인 ‘홀로그램 아트&갤러리쇼’에 지난 14일 개막 이후 4,000여 명이 방문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오는 28일까지 열리며, 최신 홀로그램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다.

이번 전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의 지원을 바탕으로 개최되며, 홀로그램 관련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기획·운영하고 있다.

기업들은 최신 기술을 선보이며 제품 상용화 가능성을 타진하고, 협업 기회를 모색하는 등 홀로그램 산업의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단순한 전시를 넘어 관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를 마련해 실감형 경험을 제공한다.

익산시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더욱 쉽게 홀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전시뿐만 아니라 공공시설 내 체험 공간 확대에도 힘쓰고 있다.

익산청년시청, 익산석제품전시홍보관, 익산역 등 주요 거점에서 홀로그램 쇼룸과 체험관을 운영하며, 방문객들에게 최첨단 기술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제1회 전국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실시



내달 5일, 전국 최초로 제1회 전국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실시된다. 군산 지역에서는 중부, 동군산, 제일 새마을금고 3곳에서 각각 1명의 후보가 등록해 무투표로 당선될 것으로 보인다. 군산시선관위가 위탁 관리하는 이번 선거에 따르면, 군산 지역의 3개 새마을금고는 대의원 투표 방식으로 이사장을 선출한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출 방식은 개정된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2023년 평균 자산 기준이 2000억원 이상인 새마을금고가 직선제 대상이며,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새마을금고는 직선제와 간선제를 택할 수 있다.

후보 등록 마감일인 지난 19일, 군산 중부새마을금고에는 현 이사장 김명숙(59/사진), 동군산새마을금고에는 전무 이명희(54/사진), 제일새마을금고에는 현 이사장 추종효(75/사진)가 등록했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전국 첫 동시 이사장 선거로 조합원들의 관심이 낮고, 높은 인지도를 가진 현직 및 전직 이사장들의 경쟁력이 두드러져 후보 경쟁률이 저조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한편 단일 후보가 등록된 금고는 투표일인 내달 5일 최종 당선인으로 확정된 후 내달 21일부터 4년의 임기를 시작된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민생회복지원금, 미신청자 접수 서둘러야

정읍시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1인당 3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이 오는 28일 마감된다.

시는 장기 출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 신청 기간을 5주 연장했으나, 아직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은 시민들은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강도 높은 예산절감을 통해 마련됐다. 시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전체 시민 10만 2647명을 대상으로 지급을 시작했는데, 지난 20일 기준으로 97.7%인 10만 318명이 지원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지원금이 시민들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신청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아직 신청하지 않은 시민들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꼭 신청해 혜택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군산시, 해빙기 대비 도로파임 집중 정비 추진

군산시가 겨울철 잦은 강설에 따라 반복된 결빙 및 해빙으로 생긴 도로파임(포트홀)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내달 중순까지 집중 정비를 추진한다.

도로파임(포트홀)은 오랜 세월 반복되는 충격 및 교통량, 도로 결빙 및 해빙의 반복, 겨울철 제설 자재 살포로 인한 지반 약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한다.

현재 시는 순찰조를 2개 조로 편성하여 1일, 2회 도로 순찰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읍면동 담당 직원이 참여하는 도로 민원 접수 오픈 카톡방도 함께 운영하면서 촘촘하게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중이다.

현재까지 1,212건의 도로파임(포트홀)을 처리하였으며, 도로파임(포트홀) 맵 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를 통해 상습 발생 구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도로 재포장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 모현공원, 빛으로 물든 도심 속 치유 공간

익산시 모현공원이 빛을 더해 새로운 야경 명소로 거듭났다. 한층 밝아진 조명과 특색 있는 경관으로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아름다운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익산시는 모현공원 내 주요 구간에 불라드등과 민들레조명, 달조명, 고보조명 등을 설치하고, 조형물과 경관을 추가해 야간에 도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특히 맨발산책로와 쉼터 주변에는 은은한 조명을 배치해 시민들이 밤에도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연미를 살린 조명 연출로 한층 더 아늑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다양한 테마조명을 활용해 야경을 즐기며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도 마련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남원시, 코레일과 관광 활성화 모색

코레일 관계자 초청 팸투어 진행…남원 문화·미식·야경 매력 홍보
채류형 관광상품 개발 가능성 타진…코레일 연계 관광객 지속적 유치

남원시는 지난 18일과 19일 2일간에 걸쳐 코레일 관계자들을 초청해 남원만의 맛과 볼거리를 연계한 새로운 관광상품을 추진하기 위해 팸투어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팸투어는 코레일을 연계한 관광객 유치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첫 걸음으로, 코레일 관계자들에게 남원의 다양한 매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팸투어에는 남원시의 대표적인 미식 여행지와 관광 명소들이 포함돼, 남원의 이색적 음식은 물론,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혼불문화관 등 문화유산과 자연경관을 두루 체험할 수 있었다.

특히 광한루원의 야경과 새롭게 개관을 앞둔 달빛정원과 스마트루나를 연계한 야간관광에 높은 관심을 보여, 숙박과 연계한 채류형 여행 상품 개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남원시 관계자는 미식 관광과 연계된



남원시는 지난 18일 코레일 관계자들을 초청해 남원만의 맛과 볼거리를 연계한 새로운 관광상품을 추진하기 위한 팸투어를 이틀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다양한 여행 상품을 통해 남원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남원시는 코레일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남원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화·역사·자연 관광지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코레일과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 3월 13일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남원시를 대표하는 여행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청소년문화의집, 우수청소년시설 표창

창의적 프로그램·지역사회 협력·자치활동 강화 등 높은 평가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이 전북특별자치도청소년수련시설협의회 우수 청소년시설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다.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은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운영, 지역과의 협력, 창의적인 프로그램 기획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주요 실적으로는 ▲청소년 수련 활동 인증제 ▲기후환경 프로젝트 ‘망원경’ ▲디지털 공간프로젝트 ‘We대한동행’ 등 시대적 변화에 발맞춘 프로그램을 지역사회와 협력해 진행해 주목을 받았다.

특히, 청소년들의 자치 활동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은 앞으로 청소년들의 주도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최정선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 관장은 “이번 우수 청소년시설 표창장은 청소년들과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시 대강면, 담양군 창평면과 간담회…상생 발전 기반 마련

남원시 대강면(면장 김종표)은 지난 19일 대강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담양군 창평면과 고향사랑기부 및 시정 홍보를 위한 교류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대강면과 창평면 관계자들이 참석해 서로의 지역 발전과 우호 증진을 위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번 간담회는 두 지역 간의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특히, 대강면은 창평면에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고, 지역의 주요 시책 사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두 지역은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이번 행사는 대강면이 추진 중인 여러 사업과 함께 남원시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강면은 창평면과의 협력을 통해 더 많은 주민들이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시정 홍보와 교류 활동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지역 농특산물 활용 ‘로코노미’ 디저트 출시

‘로컬+이코노미’ 트렌드 발맞춰 순창 고추장 등 맛 담은 초콜릿 개발

순창군이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프리미엄 디저트 산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군은 올해부터 순창 고추장, 밤, 블루베리 등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순창 담은(DAMEUN) 초콜릿’을 개발하며,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로코노미(Local Economy) 트렌드에 발맞춘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로코노미는 ‘로컬(Local)’과 ‘이코노미(Economy)’의 합성어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과 서비스 소비를 촉진하는 경제 트렌드를 의미한다. 이는 소비자들이 단순한 제품 구매를 넘어, 지역 고유의 이야기와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에 선보인 ‘순창 담은 초콜릿’은 ‘순창의 맛과 정성을 가득 담은 초콜릿’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순창의 고유한 이야기를 녹여낸 차별화된 미식 경험을 제공하는 제품이다. 전통과 자연, 정성을 현대적인 디저트로 승화시킨 프리미엄 브랜드로 탄생했다.

최근 순창월랜드에서 열린 초콜릿 시



순창군이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프리미엄 디저트 산업에 본격적으로 나서며 순창 고추장, 밤, 블루베리 등을 활용한 ‘순창 담은(DAMEUN) 초콜릿’을 개발했다.

연회에서는 순창의 대표 디저트를 선보이며 큰 주목을 받았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지역 내 5개 카페가 참여했으며, 국내 유명 쇼콜라티에에 피정훈 대표가 초콜릿 제작 시연을 진행했다.

군은 이번 초콜릿 개발을 통해 매콤한 고추장, 달콤한 밤, 상큼한 블루베리의 풍미를 살려 감칠맛이 돋보이는 독창적인 맛을 구현했다. 아울러 군은 ‘순창 담은 초콜릿’ 본격 판매 시기를 오는

3월 14일 화이트데이로 초점을 맞추고 향후 지역 백화점 과 대형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전국적으로 판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순창의 전통 발효식품인 고추장을 비롯한 다양한 농특산물의 매력을 국내외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순창=박지현 기자

더민주완주혁신회의 출범…당원 최대 원외 조직

전북 시군 조직 중 최초…600여 명 혁신위원 구성, “조기 대선 승리 준비”

더민주완주혁신회의(이하 완주혁신회의)가 지난 22일 완주봉동농협 3층 대회의실에서 전북 시군조직으로는 가장 먼저 출범식을 가졌다.

더민주혁신회의는 더불어민주당 내 최대 원외 조직으로 내란 종식, 국정 안정, 대선 승리라는 목표 아래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정책 발굴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출범식을 주관한 완주혁신회의 상임대표 서남용(완주군의회 전반기의장), 공동대표 윤수봉(전북특자치의원),

장우영(더불어민주당 완주연락사무소 정책실장)을 대표단을 필두로 40여 명의 상임위원과 600여 명의 혁신위원을 중심으로 읍, 면 대표까지 선임을 마쳤다.

완주혁신회의는 출범식 이후 조직을 더욱 확대하여 조기 대선의 승리를 빠르게 준비하는데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더민주전국혁신회의의 강위원 상임고문, 전북혁신회의의 강충상 공동상임대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한준호 최고위원의 축사와 함께 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국회의원, 완주군 유희태 군수, 완주군의회 유익식 의장, 전북도의회 권요안 의원과 군의회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초청 강연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정부실장인 김우영 국회의원(은평구을)의 특별 강연이 있었다. 완주혁신회의의 출범식은 전북 내 첫 출범식으로 조기 대선 준비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완주=김명곤 기자

순창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추진…경영부담 완화

순창군이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전년도 연간 매출액 3억 원 이하의 관내 소상공인이며, 국제청 홈텍스 자료를 기준으로 카드 매출액의 0.5%를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도박업소와 성인

용품 판매점 등 사행성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이달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은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들의 경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많은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 이번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 경제교통과(063-650-133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업소당 최대 500만원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관내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과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음식점 등 시설개선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내용은 ▲주방, 홀, 화장실 등 영업장 환경 개선 ▲임식테이블 지원 등으로 총 시설개선비의 70%, 업소당 최대 500만원(자부담 30% 포함)을 지원하며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 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이 남원시로 등록된 일반음식점, 휴

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이다. 식사류 취급 음식점이 아닌 주점형태의 음식점, 휴폐업 중인 업소, 신청일 현재 임시 테이블 설치 완료 업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을 희망하는 업소는 신청서류를 오는 3월 5일까지 남원시보건소 위생안전팀 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남원시지부를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 뱀사골 고로쇠 채취 본격 시작…‘봄기운 물씬’



남원시는 지리산 고지대인 뱀사골, 반야봉 일원에 형성된 고로쇠나무 군락지에서 봄기운 머금은 ‘지리산 뱀사골 고로쇠 채취’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전했다.

고로쇠나무에서 올해 첫 고로쇠 수액 채취 작업을 시작으로 4월 초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낮밤 기온차가 10도 이상일 때 채취량이 절정을 이룬다.

지리산 뱀사골 지역은 고로쇠나무 자생지로 유명하며, 해발 600m 이상인 산내면 뱀사골 인근에 서식하는 지름 20cm 이상의 고로쇠나무에서

채취하는데 해풍이 미치지 않는 지역 특성상 전국 최고의 맛과 품질로 주목을 받고 있다.

무기불질 함량이 풍부한 고로쇠 수액은 골다공증 개선, 면역력 강화, 숙취 해소 등에 효과가 탁월하다고 알려져면서 이른 봄에만 만날 수 있는 건강음료로 자리매김했다.

봄기운을 맛보려는 이들의 주문이 이어지고 있으며 농한기 100여 농가의 소득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내면장은 “지리산 뱀사골 고로쇠 수액의 성분과 수질 향상을 위해 농가들과 지속적인 소통과 노력을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3월 8일 산내면 뱀사골(반산 주차장)에서 ‘제37회 지리산 뱀사골 고로쇠 야수 축제’가 개최될 예정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취학 전 천 권 읽기’사업 활성화 박차

완주군이 어린이들의 독서 습관 형성을 위한 ‘취학 전 천 권 읽기’사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0일 완주군은 어린이집 대표 및 관계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어린이집에서 본 사업을 활용하는 다양한 사례가 소개됐으며, 학부모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과 다문화 가정의 독서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이 활발하게 오갔다.

또한 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아지기도 했다.

향후 완주군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독서프로그램 운영, 책꾸러미 배달·대출서비스 운영, 부모대상 책육아 동아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어린이집의 목소리를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김은희 도서관사업소장은 “어린이집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였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완주=김명곤 기자

순창군 상반기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솜뿔 클래스’ 눈길

순창군이 오는 26일부터 군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2025년 상반기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상반기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방송댄스 ▲위빙공예 ▲어반스케치 ▲태평소 ▲캘리그래피 ▲소도구 필라테스 ▲꽃차 소믈리에 ▲플로리스트 등 총 8개 과정으로 구성된다.

과목별로 12~20명의 수강생을 모집해 총 164명이 참여할 수 있다. 단, 신청 인원외 과반수에 미달할 경우 해당 과정은 폐강된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평생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짧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솜뿔 클래스(Short-term Class)’를 마련했다. 꽃차 소믈리에 과정과 플로리스트 과정이 이에 해당하며, 각각 4회차 수업으로 진행된다.

또한, 수강생들의 일정에 맞출 수 있도록 3월반과 4월반으로 나눠 개강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군민들에게 수요조사를 받아 선정됐으며, 오는 3월 10일 방송댄스 과정을 시작으로 총 6월까지 운영된다.

자세한 사항은 평생교육 홈페이지(scedulife.co.kr)에서 확인과 접수가 가능하며, 문의는 순창군청 행정과(063-650-1239)로 하면 된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적극 홍보

완주군이 최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표본감시 환자 확산세가 증가함에 따라 감염증 예방수칙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군은 방역수칙을 적극 알리며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상시 감시체계와 감염관리 점검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하기 때문에 집단발생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수는 작년 11월 1주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 1월 4주 기준 최근 10년 내 최고 수준의 발생을 보였다. 특히, 전체 환자 중 0~6세의 영유아가 51.4%를 보여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예방수칙으로는 올바른 손 씻기, 채소·과일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음식물 충분히 익혀 먹기(85℃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 끓인 물 마시기, 위생 조리(칼·도마는 소독 사용, 조리도구는 채소용·고기용·생선용 구분 사용 등 일상생활에서의 예방이 중요하다.

/완주=김명곤 기자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장미 갤러리, 윤지원 개인전 개최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 장미갤러리에서 군산의 다양한 기억들을 담아낸 윤지원 개인전 ‘기억’이 열린다.

윤지원 화가는 다수의 개인전, 단체전을 개최하면서 왕성한 전시 활동을 선보이는 작가로 소외된 이들의 마음에 공감하는 작품을 통해 주목받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 화가는 군산 지역의 현실을 상징적이고 감성적으로 충만한 물상으로 변형해 관객에게 과거와 현재, 개인의 서사와 보편적 주제의 융합을 경험하도록 한다. 또한 작품에서 기억과 장소의 상호작용을 보여줘 자아와 세상 사이에서 시대를 초월한 대화가 될 수 있는 순간을 보여 준다.

작가는 “작품을 통해 지역인들과 공감과 연대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전시는 오는 25일부터 4월 27일까지 진행된다.

/군산=지송길 기자



완주군 운주면, 취약계층 가정 연탄 1,000장 배달

완주군 운주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이선재, 홍성희)가 관내 난방 취약계층 세대 위해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사)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 운동본부(운주면회장 이현주)의 후원으로 관내 다문화, 장애, 홀몸노인 세 가정에 연탄 1,000장을 직접 배달하며 안부를 확인하고 온정을 나눴다.

이현주 회장은 “연탄을 전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난방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따뜻한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선재 공동위원장은 “지역사회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올 겨울나기에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고 전했다.

홍성희 운주면장은 “매년 연탄 나눔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난방비 걱정을 덜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운주면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 기자

전북도청 컬링팀, 106회 동계체전 준우승

2025년 1월 동계세계대학(유니버시아드)경기대회 이어 연속 2위 은메달

전북특별자치도 컬링팀이 제106회 동계체전에서 뛰어난 경기력을 보여주며 결승에 진출했으나, 강릉시 컬링팀과의 결승에서 아쉽게 패배하며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컬링팀은 예선부터 강력한 상대들을 상대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순조롭게 결승 진출을 확정지었다.

예선에서의 안정된 경기력과 준결승에서 펼친 치열한 점전에서도



전북특별자치도 컬링팀이 제106회 동계체전에서 강릉시 컬링팀과의 결승에서 아쉽게 패배하며 준우승을 차지했다

팀원들의 단합과 전략적인 경기운영이 돋보였다.

결승에서는 강릉시 컬링팀을 상대로 점전을 펼쳤으나, 마지막 순간까지 치열한 경기가 이어진 끝에 아쉽게 금메달을 놓쳤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체육 발전을 위한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 내 체육 인프라와 선수 육성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

전북 보건의료계,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한뜻

정기총회서 퍼포먼스 진행 의료계도 힘 보탠다… 지역보건의료 서비스 질적 향상과 직결될 것

전북특별자치도 보건의료계가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적극 지지하며, 보건의료 발전과 연계한 글로벌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도내 보건의료계를 대표하는 약사회·한의사회·의사회·간호조무사회가 지난 15일부터 정기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며,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염원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한 해 동안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보건의료 발전 방향을 논의

하는 자리에서, 전북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한 올림픽 유치 캠페인까지 함께 진행된 것이 특징이다.

전북약사회는 지난 15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제71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북약사회는 2036년 하계올림픽 전주 유치를 위한 퍼포먼스를 펼치며, 올림픽 개최가 지역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직결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일에는 전북한약사회가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오는 22일에는 전북간호조무사회가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김은지 기자



전북의사회는 지난 15일부터 정기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며,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염원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익산 레미콘·아스콘, 익산 녹색도시 천만 원 기부

익산시는 ‘㈜익산 레미콘·아스콘’이 녹색정원도시 조성에 동참하고자 성금 1,000만 원을 기부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푸른익산 가꾸기 운동본부에 기탁된 후, 녹색정원도시 조성을 위한 나무 식재에 사용될 예정이다.

㈜익산 레미콘·아스콘(대표이사 전병곤)은 함열읍에 위치한 레미콘 회사로, 지역 건설사업에 참여하며 익산 발전에 기여해 왔다.

전병곤 대표이사는 “익산시의 녹색 정원도시 조성과 푸른 익산 가꾸기 사업에 보탬이 되고자 성금 지원을 결정했다”며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해 익산시민과 함께 상생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미세먼지 저감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녹색정원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 황토현농협, 정월대보름 맞이 반찬나눔

정읍 황토현농협(유형기 조합장) 정월대보름 맞이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반찬나눔행사를 진행했다.

황토현농협 직원들과 농가주부 모임 회원들은 찹쌀,버섯들깨탕, 김, 숙주나물 등으로 보름음식을 직접 만들어 지역내 84가구에 전달하며 건강과 안부를 확인했다.

정읍 황토현농협 유형기 조합장

은 바쁘와중에도 봉사에 함께해준 희망드림봉사단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정월대보름은 풍요의 원점이라는 큰 명절인 만큼 농협에서 준비한 음식들로 건강하고 풍성한 한 해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앞으로 지역사회 공헌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김광길 교수, 제15대 남원미술협회 지부장 당선

김광길 사단법인 남원국제도자예술연구센터 이사장이 제15대 남원미술협회 지부장에 당선됐다.

남원미술협회는 “지난 18일 남원예술회관 회의실에서 실시된 제15대 지부장 선거에서 단독 후보로 출마한 김광길 이사장이 무투표 당선됐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김광길 당선인은 “남원미술협회는 오랜 전통과 가치를 지닌 예술 공동체로,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협회가 더욱 발전하고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새로운 도약을 강조했다.

이어 “남원미술협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국내외 전시회 확대 등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차세대 작가 양성 등 남원미술협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과 전라남도 미술대전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 서남대 교수를 역임한 김 당선자는 사단법인 남원국제도자예술연구센터 이사장을 맡고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도립국악원,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기원 챌린지’ 동참

전북특별자치도국악원(원장 유영대)은 지난 21일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기원’ 챌린지에 동참했다.

도립미술관의 지목을 받은 도립국악원은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를 기원하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올림픽 유치를 적극 지지했다.

유영대 국악원장은 “오는 28일 하계올림픽 유치 대상지가 선정되도록 도민과 국악인의 여론을 결집하여 올림픽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악원은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기원 홍보영상을 촬영하여 유튜브 채널에 홍보하고 있다.

한편 도립국악원은 다음 릴레이 캠페인 주자로 어린이창의체험관, 호성지역아동센터를 지목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은행 김제지점, 450만원 상당 선물꾸러미 기탁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전북은행 김제지점이 지난 21일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JB이웃사랑 선물꾸러미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된 선물꾸러미는 450만원 상당의 물품으로, 즉석밥, 라면, 누룽지, 김, 치약, 칫솔, 수세미, 물티슈 등의 총 9종의 생필품으로 구성됐다.

전북은행 김제지점의 이번 활동은 그들의 브랜드 철학인 ‘함께하는 이웃, 나누는 따뜻함’을 지역사회에 실천하는 사례로서 단순한 기부를 넘어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상생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김제=온봉기 기자

일상에서 미세먼지 줄이는 실천방법



공회전, 과속, 과적 금지



폐기물 배출을 줄여 소각량 줄이기



적정 실내온도 유지 낭비되는 대기전력 줄이기



불법 소각, 배출은 바로 신고 (128)

〈一事一言〉



‘하늘이법’ 졸속 입법경쟁 멈춰라

윤근혁

교육의 창 취재본부장

대전지역 한 초등학교 교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는 어린 학생을 살해한 유례 없는 흉악한 범행을 저질렀다. 교육계와 사회가 커다란 충격에 빠진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런 만행이 벌어진 지난 10일 이후 경찰은 18일 현재, 가해 교사에 대한 제재로 된 대면조사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범행 뒤 자해한 교사의 치료가 늦어지는 탓이다. 사건 이후 대전시경찰청과 대전시교육청은 범행을 저지른 교사가 ‘우울증 환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물론 담당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에 적힌 사실을 말한 것이긴 하다. 그 이후 불뚝은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에게 튀었다. 상당수 언론들이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을 겨냥했다.

그러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2일, 장관-시도교육감 간 담회에서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특달같이 밝혔다. 사건 발생 이를 뒤의 일이다. 이 장관은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복직 시 정상 근무의 가능성을 필수화하는 법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여야 의원들은 18일 현재, 10건의 하늘이법을 발의(교육공무원법 개정안 기준)했다. 12일에 2건, 13일에 3건, 14일에 2건, 17일에 2건, 18일에 1건이었다. ‘누가 빨리 발

의하냐’ 경쟁 하듯 하늘이법 대표 발의에 나선 모습이다.

이 법안의 내용은 이 장관의 지난 12일 발언 내용과 비슷하다. ‘정신질환 교사 배제’가 큰 줄거리다. 하지만 상황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2023년 교사노조연맹에서 교사 1만여 명을 대상으로 벌인 자체 설문조사에서 교사 4명 가운데 1명(26.59%)이 “5년 이내 정신과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온갖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직업의 특성상 교사는 정신질환을 겪을 가능성이 일반인보다 높은 게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건 며칠 만에 교육부장관과 일부 의원들이 정신질환을 겪는 교사 모두를 겨냥한 법안을 경쟁하듯 제안하고 발의한 것은 정말 성급한 행위다. 범행에 대한 진상도 규명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서두르는가.

게다가 기존 법령과 법규에도 ‘교직 수행이 어려운 교원 배제, 분리’ 조항이 분명히 있다. 질병·휴직위원회와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두어 직권 휴직과 복직 여부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 위원회는 그 동안 유명무실이었다. 최근 5년 사이에 단 한 차례도 해당 위원회를 열지 않은 교육청이 수도적이다. 이미 존재하는 위원회가 왜 유명무실했는지 따져보지도 않고 비슷한 내용을 담은 또 다른 법을 급박하게 만들려는 것은 성급한 행위다. 우울증도 마찬가지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들을 전수조사해서 교직 분리 조치를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울증 교사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증상을 가진 교사이지, 나쁜 교사가 아니다. 우울증이 죄가 아니라는 말이다.

“저는 우울증으로 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직을 앞두고 초등학생 살해 사건이 터졌고, 교육부와 의원들의 대응을 보니 사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17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 등이 연 ‘하늘이법 입법추진 교원단체 간담회’에 참석한 한 교사는 이처럼 속마음을 털어놓기도 했다.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는 2.5% 정도로 다른 나라에 견줘 높지 않다. 하지만 숨어 있는 수치가 엄청나다. 의학계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는 비율은 10%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전국 초중고 교사 6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초등생 살해 사건의 원인’에 대해 “질병휴직위원회 등 기존 제도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고 학교로 책임을 떠넘기는 교육부·교육청 태도”라고 답한 비율이 77.8%(중복 응답)로 가장 높았다.

사실 정부와 정치권은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 새로운 법을 만드는 시늉을 하는 경우가 많다. 기존 제도가 있는데도 그것을 활용하지 못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다. 같은 조사에서 교사들의 96.7%(중복 응답)는 ‘최근

정부와 정치권 대책’에 대해 “질병휴직위원회 등이 작동하지 않은 교육행정에 대한 책임 있는 반성과 대책이 없다”고 답했다. 또한 교사 98.3%(중복 응답)는 하늘이법’에 대해 “불이익을 염려해 정신과 치료나 상담을 기피할 수 있다”고 답했다.

다시 말하지만, 우울증은 죄가 없다. 일부 의사들은 자신의 제자를 살해한 대전 초등교사는 “우울증 환자라기보다는 반사회적 성격 장애”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사상 초유로 벌어진 해괴한 교사의 만행을 갖고 와서 우울증 등을 일반화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래서 진상규명이 중요한 것이다. 사이코패스를 잡는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우울증 교사를 잡는 제도를 만들면 안 되기 때문이다. 다행히 교사들은 물론 학부모단체들도 ‘하늘이법 신중 추진’을 제안했다. 의학계도 비슷한 의견이다. 더불어민주당도 ‘하늘이법을 당론으로 추진하되, 신중하게 추진할 것’을 결정한 상태다. 문제는 교육부와 일부 눈치 빠른 국회의원들이다. 당장 졸속 하늘이법 법안 발의 경쟁을 멈추길 바란다.

본 칼럼은 시민연론 민들레에게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원과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설

전북, 체류형 관광지 도약 위한 과제

전북이 체류형 관광지로서 도약하고 있다. 최근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 데이터랩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전북 방문객 수는 9,864만 명으로 전년 대비 0.3% 증가했으며, 평균 체류시간 또한 전국 광역자치체 평균보다 410분 긴 2,784분(46.4시간)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3위에 해당하는 성과로, 전북 관광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관광객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비지출이 감소하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전북이 체류형 관광지로 자리 잡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관광지 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우선, 전북 관광의 핵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화된 관광 콘텐츠 개발이 필수적이다. 전북자치도는 ‘전북야행’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 미식 관광 활성화, 친환경 산악관광지구 지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음식이 전북 방문의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된 만큼, 미식 관광을 브랜드화하고 지역 특색을 살린 음식 관련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전략이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음식과 연계한 스토리텔링 여행 코스를 마련해 방문객의 체류시간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글로벌 마케팅 전략도 강화해야 한다. 2024년 전북을 방문한 외국인인 234만명으로, 군산, 전주 등이 주요 방문 지역으로 나타났다. 도는 중국 단체 관광 재개를 계기로 일본, 중국,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 시장을 집중 공략하며, 해외

‘K-관광 로드쇼’ 및 ‘찾아가는 관광 설명회’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지속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이 체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글로벌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다국어 안내 시스템을 확충하고, 편리한 교통망과 숙박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관광객 증가에도 불구하고 2024년 전북 방문객의 신용카드 소비지출 규모는 7천38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3% 감소했다. 이는 고금리, 물가 상승, 사회적 이슈로 인해 관광객들의 소비 심리가 위축된 결과로 분석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와 연계한 관광 활성화 전략이 필요하다. 전통시장과 로컬 브랜드를 활용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협력하여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전북이 방문객 1억명 목표를 달성하고 지속가능한 관광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비전과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단기적인 관광객 증가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산악관광 등 새로운 관광지를 개발하고,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한다.

또한, 관광객의 소비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지역 경제와 관광 산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전북자치도는 지역의 자연과 문화를 활용한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관광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때, 전북은 진정한 체류형 관광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재열전



상주사 목조삼세불좌상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 유물, 불교조각, 목조
-지정일- 2013년 5월 20일
-시대- 조선시대
-소재지- 군산시 함안로 57-29

▲오늘의시

가슴 몽글하게 살아야 한다 / 양광보

어제 걷던 거리를
오늘 다시 걷더라도
어제 만난 사람을
오늘 다시 만나더라도
어제 겪은 슬픔이
오늘 다시 찾아오더라도
가슴 몽글하게 살아야 한다
식은 커피를 마시거나

딱딱하게 굳은 찬밥을 먹을 때
살아온 일이 초라하거나
살아갈 일이 쓸쓸하게 느껴질 때
진부한 사람에게 빠졌거나
그보다 더 진부한 이별이 찾아왔을 때
가슴 더욱 몽글하게 살아야 한다
아침에 눈 떠 밤에 눈 감을 때까지
바람에 꽃 피어 바람에 낙엽 질 때까지

마지막 눈발 흩날릴 때까지
마지막 숨결 멈출 때까지
살아 있어 살아 있을 때까지
가슴 몽글하게 살아야 한다
살아 있다면
가슴 몽글하게
살아 있다면
가슴 터지게 살아야 한다

시인 약력 : 경희대 국문과를 졸업 후 노동 운동, 정치 참여, 사업, 강의와 집필 활동의 삶을 살아왔다. 2012년 첫 시집을 출간하며 전업 시인의 길로 접어들었고, 2016년 강원도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11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 (윤관우) 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김관춘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 010-96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완주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후지국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팔복지국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전지국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규정 및 실천요령을 준수합니다

전북인과 함께 만들어가는 오늘의 뉴-스

전북타임스 신문!

광고문의 282-9601 기사제보 282-9603 신문구독 282-9600

매일 아침 10분, 책 읽는 문화로 학력신장의 길을 열다

- ▶ 전북교육청, 아침 10분 독서·책 읽는 학교문화 만들기 등 문해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 ▶ 현대적·창의적 학습 공간 '미래형 학교 도서관' 조성... 2029년까지 총 276개교 탈바꿈 계획
- ▶ 도서관 기능 강화하는 사서교사·사서 인력 대폭 확충... 학생들 독서 활동 활성화 기여

.....

요즘 아이들에게 독서는 점점 익숙하지 않은 습관이 되어가고 있다. 스마트폰과 영상 콘텐츠가 일상의 중심이 되면서, 아이들은 책을 손에 쥐기보다 화면을 바라보는 시간이 훨씬 길어졌다.

이로인해 사회적으로 문해력 저하 문제가 심각해지고,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학업성취도 평가(PISA) 결과에 따르면 한국 학생들의 읽기 능력(문해력)은 지난 10년간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교육계 역시 학생들의 문해력과 독서 습관을 강화할 방안을 깊이 고민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전북교육청)은 이러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책 읽는 문화'의 회복에서 찾고 있다. 문해력은 단순한 학습 능력을 넘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핵심 도구이기 때문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생들에게 실력과 바른 인성을 길러주는 것'을 강조하며, 단순한 성적 향상이 아닌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교육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그 출발점이 바로 독서·인문 교육이며,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있다.

/편집자 주

.....

문해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도입한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독서 습관이 향상되고, 수업 집중도가 높아지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 학교 도서관, 창의적 학습 공간으로 변신

전북의 학교 도서관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과거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보관하는 장소였다면, 이제는 정보를 활용하고 토론하며 함께 성장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미래형 학교도서관'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책을 읽고, 정보를 탐색하며, 창의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는 학습 공간으로 조성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도내 전체 학교도서관의 대출 권수가 2023년에 비해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3년에 조성된 미래형 학교도서관에서는 대출 권수가 17.9%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올해 56개교를 대상으로 미래형 학교도서관 조성을 확대하고, 2029년까지 매년 55개교씩 추가로 조성하여 총 276개교를 미래형 도서관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내 전체 학교 도서관의 58%를 현대적이고 창의적인 학습 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다.

◆ 독서를 돕는 전문가, 사서교사 및 사서 인력 확충

도서관의 기능 강화를 위해 사서교사와 사서 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정책도 추진 중이다. 전문 인력이 배치되면 학생들에게 적절한 도서를 추천하고, 독서 활동을 지도하며, 도서관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실제로 지난해 사립학교에 신규 배치된 사서교사가 있는 학교에서는 도서관 자료 이용률이 2.1배 증가하였다. 이는 학생들의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 사서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 인문학적 감성 키우는 문화

전북교육청은 독서문화 확산과 함께 인문학 중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

[서거석 교육감]

"문해력은 학력의 기초, 표현하는 힘의 원천"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전북교육의 학력 신장과 관련해 "독서·인문교육은 학생들의 문해력을 키우고, 학력의 기초를 다지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지속적인 독서 습관 형성을 강조했다.

또한 "매일 아침 10분 독서는 단순한 독서 시간이 아니라, 문해력과 집중력을 기르는 핵심 교육 활동"이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 역량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독서·인문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문해력은 학력의 기초이며, 스스로 사고하고 표현하는 힘의 원천"이라며 "미래형 학교도서관은 학생들이 책을 통해 문해력을 키우고, 창의적 사고를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도서관 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 교육감은 이어 "독서 인문 교육은 단순한 책 읽기가 아니라, 깊이 있는 사고와 비판적 사고력을 길러주는 핵심 교육"이라며, 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을 약속했다.

또한 "책을 가까이하는 습관이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다"며, 전북교육청이 독서 인문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거석 교육감은 도서관 기능 강화를 위해 "사서교사와 사서 인력 확충을 통해 학생들에게 적절한 도서를 추천하고, 맞춤형 독서 지도를 강화하여 문해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하고, "독서와 토론은 문해력을 높이고,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키우는 중요한 교육 활동"이라며, 전북 독서토론마당과 같은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을 운영하고 있다. 저 '전북학생 시(詩) 페스티벌' 및 학생 해설 시인학교'를 통해 학생들은 직접 시를 창작하고 발표하며 문학적 감성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또한, '인문학 나들이 주간 운영'을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인문학 강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경험하며 사고력을 확장할 수 있다. 아울러 '전북학생 문학상 및 창작기자 출간 기념회'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책을 집필하고 출간하는 경험을 통해 창작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전북 독서토론마당'을 개최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주제에 대해 토론하며 비판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다.

◆ 책과 함께 성장하는 교육, 미래를 향한

발걸음

책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종이를 넘기는 행위가 아니다. 한 줄 한 줄을 읽으며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배우고, 공감하며, 깊이 있는 사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문해력은 곧 세상을 이해하는 힘이며,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능력의 기초가 된다.

전북교육청은 이러한 문해력 향상을 바탕으로 학력 신장과 책임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교육의 방향을 맞추고 있다. 앞으로도 독서교육과 문해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학생들이 책과 예술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을 것이다.

/최성민 기자

